

정청래 “전북 발전 위해 더 노력”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초복 속 전북 민심 행보

봉동시장 방문·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참석

오는 8.1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당 대표가 초복인 15일 전북 완주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완주군 봉동시장을 둘러본 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만나 소통했다. 그는 행사에서 “자신의 외가가 완주 운주면이고 어머니도 이곳에서 자라 시집을 갔다”며 자신과 완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전북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정 전 대표는 전북과의 인연을 특별히 강조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발언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다만 다음 달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직접적인 정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대신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축하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에 대한 기



15일 전북 완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이성운·한민수 의원이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를 밝히는 데 발언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국회의원(전주을)과 한민수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도 함께 참석했다.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한민수 의원은 자신이 익산 출신임을 소개하며 지역과의 인연을 언급했고, 이성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전 대표 일행의 화산면 방문은 행사 직전에는 이뤄졌으며, 현장 참석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봉동시장 방문에 이어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까지 연이어 참석하며 전북 지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특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시

점임에도 선거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자신의 지역 연고와 전북 발전 의지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전북 주민들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무게를 둔 행보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 전 대표의 이번 완주 방문이 전북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한 현장 중심 행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만호 기자

‘지방의원의 가치, 시민의 삶 속에서 증명’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을 두고 “시의원과 도의원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심심찮게 듣는다.

예산난 낭비하고 당리당락의 정쟁에만 몰두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찾아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면 지방의원은 분명 존재 이유를 증명하게 된다.

지난 14일 저녁 전주 우아동 우정신세계아파트 인근 다리 위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 감동적이었다.

밤 8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주시의회 신동아·윤혜정 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도의원은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겨울철 다리 위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백라이트 경관조명 설치, 그리고 난간이 없는 보도에 시민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을 추가 설치하는 문제까지 꼼꼼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조명의 밝기와 방향까지 세밀하게 확인하며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는 눈부심이 없도록 하면서도 보행로는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블랙라이트와 축광석을 활용한 야간 경관시설을 설명

전북 광역·기초의원, 현장서 시민 불편 해소 위해 헌신



지난 14일 전주 우아동 우정신세계아파트 인근 다리 위에서 현장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신동아·윤혜정 전주시의회 의원.

하며 “어두울수록 은하수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설”이라고 자신들이 설치한 시설물을 소개했다. 이미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되고 있으며, 전주의 관광자원과 접목하면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흥천 무궁화수목원의 시례를 소개하며 약 120m 구간에 조성된 야간 경관 시설이 스토리텔링과 결합되어 연간 40만 여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효과를 거뒀다고도 설명했다.

의원들은 토론을 통해 단순히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

역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입혀 서사가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한옥마을 경기전 돌담길과 한벽굴 부근, 전주역 치마줄길 등에 야간 경관 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문화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전주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체류형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주의 상징인 풍남문, 경기전, 태극 문양 등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면 전주만의 특색 있는 야간 관광

명소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의원들의 현장 행보였다. 회의실에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걷는 길을 직접 시민과 함께 걸으며 시민의 불편을 확인하고, 전문가들과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 모습은 지방의원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지방의회의 가치는 회의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증명된다.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어두운 골목길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불편한 곳을 찾아 해결하며, 지역의 안전과 함께 새로운 전주의 관광 자원을 함께 고민하는 등의 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생활 정치라고 할 수 있었다.

화려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시민들의 더 큰 신뢰를 만드는 만큼 기자의 시각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발로 뛰는 시의원과 도의원의 모습 속에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현장이 많아질수록 시민들이 말하는 “지방의원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시민의 애로사항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만호 기자

‘한국 정치의 왼쪽 날개 되겠다’

‘당대표 출마’ 신장식 혁신당 의원, 16~17일 전북 민생행보



조국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신장식 후보가 16일부터 17일까지 전북을 찾아 지방의회 활성화와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신 후보는 16일 전주시의원단과 간담회를 열어 전주시의회 교섭단체인 ‘혁신진보시민연대’ 출범 이후 의정활동 성과와 정책 경쟁 중심의 지방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전북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부안을 찾아 군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과 민생 의견을 듣는다.

17일에는 익산 수해 피해 농촌을 방문해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 농업기반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익산시의원단과 만나 지역정치 활성화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신 후보는 “한국 정치의 왼쪽 날개가 되겠다”며 오는 25일 열리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며, 전국 순회를 통해 민생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그는 “전북에서 확인한 정책 경쟁 중심 지방의회의 가능성을 더욱 키우겠다”며 “소상공인과 수해 농민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5기 민주정부 수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2명과 지방의원 37명을 배출했으며, 전북에서는 전주시의회 ‘혁신진보 시민연대’와 완주군의회 ‘주민혁신연대’ 등 교섭단체가 출범하며 지방의회 내 정책 경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김희수 의장, 이병도·박정규 부의장을 비롯한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표들은 15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제13대 도의회, 국립임실호국원 참배

도민 위한 의정활동 다짐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표들은 15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제13대 의회의 헌신 출범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희수 의장을 비롯해 이병도·박정규 부의장, 강태창 의회운영위원장, 정중복 원내대표 등 의정대표 5명이 참석했으며,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묵념을 올린 뒤 참배를 마쳤다.

이번 참배는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되새기

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희수 의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그 뜻을 깊이 새기고,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권요안 도의회 농복환위원장, 첫 현장행보

완주 고산 가축분뇨시설 찾아

전북자치도와 합동 점검 나서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농촌환경위원회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의정활동으로 지난 14일 완주군 고산면 가축분뇨 시설을 찾아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 의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합동점검은 고산면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축분뇨시설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시설 운영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와 생활환경과, 보건환경연구원, 완주군 환경위생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2곳과 배출 시설 1곳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실태

와 악취 관리 현황,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악취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시설별 운영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반복되는 주민 불편의 원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권요안 위원장은 앞으로는 악취, 수질, 폐기물 가축분뇨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의회,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전북·전주 배제 규탄

최영심 의원 대표발의

전주시의회(의장 최주만)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전북과 전주가 실질적으로 배제된 것에 대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제4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영심 의원(서신동)이 대표 발의한 ‘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전북소와대응및전주관광역점도시도약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에서 “지난 7월8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하



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소외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호남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전북이 반복적으로 소외되는 구조는 전

북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가 단순한 배후 도시가 아닌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광역 대도시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적 실행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전남·광주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새만금과 전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분산 배치형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시의회, 유관기관

방문으로 소통 행보 시작

정읍시의회(의장 이복형)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주요 유관기관을 방문하며 제14회 전반기 의회의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나섰다. 이번 방문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단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정읍교육지원청,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전북과학대학교 등 6개 기관을 방문해 각 기관의 주요 현안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